

‘바울의 부탁’

사도행전 20 장 17-25 절

17.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 본문 이해하기

1. 지도에서 에베소와 밀레도를 찾아 봅시다.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2.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에 대한 회상과 앞으로 그가 할 일에 대한 예견입니다. 각각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인지 파악하여 봅시다.

3. 첫 부분(바울의 에베소 회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는 동사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인도자와 함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 심화 학습 문제

1. 24 절에서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에게도 주께 받은 사명이(직무) 있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직무)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이런 사명이(직무) 없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열심을 내는 일은 ‘바로 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내가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라는 조언에 의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One Heart New Man

한 새사람을 이루자

‘바울의 부탁’

사도행전 20 장 17-25 절



알리는 말씀

1. 2017년 교회 표어는 ‘One Heart New Man’, (한 새사람을 이루자) 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영상 시청/순나눔
3. ‘공동체 암송 & 특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공동체(1/20), 12공동체(1/27), 13공동체(2/3)
 - 14공동체(2/10) 15공동체(2/17), 16공동체(2/24)
4. 2월 순장교육
 - 일시: 1월29일(주일) 오후3시15분/ 장소: 3층 예배실
5. 가족 순예배 교육
 - 일시: 1월7일(토요일) 오전9시/ 장소: 2층 유년부실
6. 순모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순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공동체 총무를 선정하여 공동체 관리부 (chodaehangjung21@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8. 두 번째 모임의 순교제는 매달 두 번째 주일 로비에 비치됩니다.